



[산업] 기아자동차 '2021 서울 EV' 출시 최대 386km 주행 08



Life

[제약특집] 코로나19에 일고차까지 "내 몸 지키는 면역력 챙기세요" L4·L5



# 헌혈·기부... 안다르식 나눔, 코로나 '희망백신' 되다

##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 안다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혈액수급에 임직원 자발적으로 헌혈 봉사 동참해

한정된 수술복으로 일하는 의료진에 2억5000만원 상당 기능성 의류 기부

아름다운 가게와 바자회 수익금 기부 저소득층 아동 위한 헬스케어 지원도

국내 요가복 브랜드 1위 애슬레저 리딩 브랜드 안다르는 윤리 경영을 기반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안다르는 '누구나 입을 수 있는 브랜드'를 목표로 지속가능경영(CSV)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추구한다.

또한 '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더 특별하고 새롭게'를 슬로건으로 둔 기업인 만큼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대한민국을 더 특별하고 새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류기부 헌혈 봉사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 현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애련 안다르 대표는 "안다르는 국가 재난 및 위기 상황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다양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 ◆코로나 극복 위한 자발적 헌혈 봉사

안다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현장의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헌혈 봉사에 동참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실상 1년 내내 부족한 혈액 수급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안다르 임직원은 23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적십자사 서울 중앙혈액원을 통해 헌혈에 참가했다. 안다르는 혈액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을 지원하고자 헌혈에 동참하게 됐음을 밝히며, 동시에 헌혈이 코로나19 감



지난해 7월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아름다운가게 윤여영 상임이사, 안다르 신애련 대표



지난달 17일 안다르는 사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후원금 330만 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 지역본부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안다르



안다르 임직원이 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 현장의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헌혈 봉사에 동참했다.



지난 11일 코로나 사태 최전선에 있는 대구 남구에 위치한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여성 간호사 및 의사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기능성 의류를 기부했다.



23일 안다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혈 봉사에 나섰다. /안다르

염에 노출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선다고 전했다.

안다르는 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헌혈을 독려하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전 및 대면 문진 검사를 실시, 헌혈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헌혈을 진행했다. 나아가, 대기가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 간의 진행 시간을 조정해 더욱 안전하게 진행했다. 신애련 대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출선수범하여 헌혈에 동참했다. 한편,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은 물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가를 지원한다.

신 대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혈에 참여 의사를 전한 모든 직원분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 ◆옷을 통해 완벽한 만족과 행복을

'옷을 통해 완벽한 만족과 행복을 주다'를 브랜드 철학으로 가진 기업인 만큼 안다르는 의류기부를 통해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오고 있다.

안다르는 지난 11일, 한정된 수술복으로 땀에 젖은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도 못한 채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여성 의료진들을 위해 안다르의 기능성 의류 1만 장(약 2억50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현재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으로 의료진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위생 수칙상 입마스크 착용에서 나오면 수술복을 환복해야 하지만 수술복 수량이 한정되어 당장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이 부족한 상황이다.

안다르 관계자는 "현재 많은 마스크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대구 여성 의료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소식을 접하고 딱 흡수와 통풍이 잘되는 기능성 소재의 안다르 의류를 기부하게 됐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에는 사회적기업 아름다운가게와 함께한 '안다르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바자회를 성료하며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바 있다.

안다르는 1억 원 상당의 9069점의 제품을 기부하고 임직원 23명과 함께 아름다운가게 안국점에서 기증 물품 판매 자원봉사를 시행, 판매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서울 4개 매장에서 진행한 해당 바자회는 1082명의 구매 고객이 방문했으며, 판매 수익금 2230만7094원을 기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안다르는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소외 아동 정서 치료 지원에 사용됐다.

####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지난달 17일 안다르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지역본부와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안다르가 사내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후원금 330만 원은 고양시에 있는 모 지역아동센터의 헬스케어 사업 진행에 사용된다고 알려졌다.

초록우산 헬스케어 사업은 어려운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저영양·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했다. 본부 관계자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영양간식 제공, 부모 및 아동 대상 영양교육 등을 실시해 아동들의 건강은 물론 심리적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가족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한다"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안다르 관계자는 "안다르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추구한다"면서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안다르는 지난해 4월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1천100만원을 기부하고 7월 과천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에 6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희사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